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한미 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 낙농사수,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입장 -

1. 한미 FTA협상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퍼주기식 협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촉진권한일정(TPA)에 떠밀려 지난 3월 26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고위급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낙농육우인들은 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2. 정부가 농업을 포기해서라도 국익을 위해 얻겠다던 '개성공단 문제', '미국 자동차관세 철폐', '섬유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조치' 등 주요분야는 이미 공염불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미국은 우리측의 딜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인 쌀개방을 막판에 내세우면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철폐와 협상 의제가 아닌 쇠고기 검역완화 등 부당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
3. 지금에 와서 실무급에서 타결하지 못한 협상을 고위급회담을 통해 '빅딜'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오직 '체결을 위한 협상전략'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타결에만 눈이 멀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다면 우리 농축산업의 근간은 물론 경제전반을 무너뜨리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
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 FTA로 인한 우리측 농업손실을 최대 8조 8천억원까지 생산액 감소를 추정하고 있고, 우리 낙농산업의 경우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산 유제품 소비가 7,000억~9,100억(소비자 가격기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쇠고기 시장의 중요한 한축인 육우산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이제 정부는 최선의 협상전략은 협상중단임이 명백해진 마당에 굴욕적인 고위급회담을 중단하고, 한미 FTA협상의 즉각적인 결렬을 선언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묵살할 경우 우리 낙농육우인들은 350만 농민형제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2007. 3. 27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